

### 부평구, '2025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9개 시책 1위 '쾌거'

부평구가 인천시 주관 '2025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9개 시책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전체 35개 일반시책 가운데 1위를 차지한 9개를 포함, 총 24개 시책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군·구가 수행하는 위임사무와 보조금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7개 분야 35개 일반시책에 대한 정량평가와, 분야별 우수·특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병행해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구가 1위를 차지한 시책은 ▲주민자치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조성 ▲아이 낳고 키움이 행복한 인천 ▲양성평등 및 여성안전사회 기반조성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업무 추진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 ▲보건의료관리 추진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이다.

구는 이번 성과로 인천시로부터 상사업비(재정 인센티브) 3억3천1백만 원과 포상금 2천6백만 원 등 총 3억5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시책별 1위 달성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는 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구, 철강업 위기 극복 위한 특례보증 이자 4% 지원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역 핵심 산업인 철강업에 다친 심각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보증 이자 4% 지원 금융 정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철강·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신규 특례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한시적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대내외적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통상 환경 변화, 저가 수입품 공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구는 복합적 위기가 관내 대형 철강 기업을 넘어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철강 관련 업체 및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가뭄에 단비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대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032-766-8090~3)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7874)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나선다

#### 시공사 및 건설업체와 간담회 열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논의 금호건설(주),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재로 열렸으며,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와 청라연장선 7개 공구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7개 공구 시공사들은 2026년도 하도급 발주계획과 협력업체 공개모집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6,32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으로, 7개 공구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역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지역업체 참여율은 사업의 '지역상생'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표 평가된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집체한 지역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와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율 제고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1공구를 시공 중인 금호건설(주)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장두홍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특수공종·특허공법이 많은 도시철도 사업 특성상 지역업체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인천업체들이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이 교통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향후에도 정기 간담회 운영과 하도급 수주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시공사 본사 방문을 통한 우수 지역업체 홍보를 병행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심하린 기자

### 강화군, 색동원 2차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확인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월 24일(화) 색동원 남성입소자 16명과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2차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심리운동연구소(우석대 산하)에 용역을 맡겨, 색동원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퇴소자 1명에 대한 2차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 24일에 오후 늦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25일 수사기관(서울경찰청)에 즉시 제공되었고, 수사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어 인지수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7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고, 인천시 장

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신고 및 피해진술인의 긴급분리 또는 전원 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 보호자 동의를 위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보고서 정보공개는 피해자측 요구가 있으면 부분공개할 예정이며, 강화군은 3월 중에 자료분석을 통해 가해자 인원, 인권유린 유형 등 진술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1차 심층조사 결과와 더불어 제공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폭행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며, 향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경우 강화군은 시설 폐쇄를 단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심하린 기자

### 남동구,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완성



남동구가 만수산 일원에 전국 최장 규모의 무장애나눔길을 완성하며, 보행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했다.

남동구는 지난 25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약자 등 지역주민 100여 명과 함께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준공 기념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숲길을 걸어 만수산 정상에 도착했다. 남동구에서 완성됐다"라며 "누구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 및 유지관리를 전국에서 최고의 무장애나눔길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무장애나눔길 2.75km에 약 2,399m를 추가로 연장해 총연장 5.141km의 전국 최장 규모의 산림형 무장애나눔길로 완성됐다.

이번 사업은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동반 가족 등 보행 약자들이 산 정상부까지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조망권이 확보된 휴게 쉼터와 야간 보행을 위한 LED 조명, 안전 난간 등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했다.

최근에는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5년도 녹색 인프라 확충사업'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종호 남동구청장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보행 약자도 언제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전국 최장의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인 남동구에서 완성됐다"라며 "누구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전 및 유지관리를 전국에서 최고의 무장애나눔길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옹진군, '신도평화대교' 명칭 최종 확정

2026년 2월 26일 개최된 인천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와 북도면을 연결하는 교량의 명칭을 '신도평화대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명칭 결정은 기존 교량과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북도면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신도평화대교'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명칭은 옹진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결정됐다. 교량 명칭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신도평화대교'를 선택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이는 인천시 주민 다수의 뜻이 모인 결과로 평가된다.

옹진군은 그동안 북도면 주민들이 교통 여건으로 인해 겪어온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교량 건설과 명칭 확정을 계기로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거 영종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야간에 운항하지 않아 주민들이 이통에 제약을 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교량은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심하린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커리어코치 위촉 및 역량 강화' 연수



2026 커리어코치 위촉식 및 역량강화 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5일 서부결대로진로센터에서 진로교육 전문가인 '커리어코치' 20명을 위촉하고,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커리어코치의 사명감

을 높이는 한편,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역량과 AI 활용 전문성을 강화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연수는 위촉장 수여와 인천 진로교육 추진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미래

사회와 진로 교육의 변화, AI 활용 맞춤형 진로 탐색, 학생 진로설계 실습 및 코칭 기법 등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된 20명의 커리어코치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인천 진로교육 생태계의 핵심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수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AI 활용 진로 탐색 여건을 조성하고, 커리어코치들의 책임감 있는 코칭으로 학교 진로 교육이 한층 활성화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는 다층적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 Dr. Seongnam 예방케어

# 닥터성남

**독감 예방접종** 전액 무료

성남 시민 누구나, 나이 상관없이 접종 가능  
※ 성별·지역·의료기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무료

65세 이상 성남 시민  
백신비 무료, 접종비(19,610원) 본인부담  
※ 60세 이상 저소득층은(의료비) 무료 접종

**백일해 예방접종** 전액 무료

성남시 '임산부-배우자 및 양가 부모' ※ 지원대상 등록 필수 상시 접종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최대 44만원

소득·연령 상관없이 성남 시민 누구나 성남시 33만 원 + 국가 11만 원  
※ 보건소에서 1차 선별-진단검사를 받아야 지원 가능(연중 상시)

**A형간염 예방접종** 전액 무료

성남 시민 20 ~ 49세 취약계층, A형간염 고위험군  
접종비 2회 지원, 상시 접종

수정구보건소 031-729-3870, 중원구보건소 031-729-3930, 분당구보건소 031-729-3990  
※ 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